

광양시 “투자기업 인센티브 강화” 기업 유치 총력

기업·투자 촉진 조례 개정...업체 정착·투자여건 개선 중점 지원기준전국최저동일·투자↑...기반시설 지원근거 마련

광양시가 투자기업 인센티브 강화 등 더 좋은 투자 여건을 조성, 기업 유치를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5일 광양시에 따르면 민선 8기 시장의 가장 핵심 과제인 '민생경제 활력과 신산업 육성' 실현을 위해 '기업 및 투자 촉진 조례'를 전면 개정했다.

특히 기회발전특구 지정,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 지원 등 새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에 따른 정착과 중소·중견기업의 투자 여건 개선을 주 내용으로 했다.

또한 부지 조성, 용수 및 전력 공급 등 투자 인프라 조성 지원과 투자기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사후 관리까지 투자기업 입장에서 꼼꼼하게 챙겼다.

더불어 보조금 지원 대상 업종을 시 전략산업으로 세분화하고 투자유치 전문관 위촉과 더불어 투자유치 성과에 대한 보상 대상자를 당초 공무원과

기업, 단체에서 일반 시민까지 포함해 투자활동을 전 시민이 참여토록 확대했다.

인센티브 개편 주요 내용은 당초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시 투자금액 250억원 이상이거나 고용 인원이 150명 이상일 경우였으나, 지원 기준을 전국 최저 기준에 맞춰 500억원,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으로 현실화했다.

대규모 투자의 경우 투자유치위원회 심의와 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원 규모와 지원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지원 기준은 투자금액 500억원에서 1천억원·고용인원 100명에서 200명일 경우 최대 100억원, 투자금액 1천억원에서 5천억원·고용인원 200명에서 500명일 경우 최대 500억원, 투자금액 5천억원·고용인원 500명 이상일 경우 최대 1천억원까지 각각 지원토록 세분화하고 투자금액을 대폭 증액했다.



광양시가 기업 유치를 위해 투자기업 인센티브 강화 등이 포함된 '기업 및 투자 촉진 조례'를 전면 개정했다.

(광양시 제공)

투자기업 입지 보조금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시설보조금은 기존 2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 금액의 2% 범위에서 최대 2억원까지 지원토록 했으나, 2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5% 범위에서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하도록 각각 상향했다.

고용·교육훈련 보조금은 상시 고용인원 20명일 때 6월 범위에서 월 50만원까지 지원에서, 상시 고용인원 10명일 때 12월

범위에서 월 6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조건을 완화하고 금액도 늘렸다.

지식정보문화산업과 국내 복귀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그동안 유망한 업종임에도 비용의 부담으로 투자를 꺼렸던 도로, 상수도, 폐수처리시설 등의 기반시설 지원 근거도 새로이 포함시켰다.

나아가 토지 매수에 대한 업무 대행

근거 또한 이번 조례에 포함시키는 등 획기적인 지원책으로 투자 여건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투자 부담 완화책으로 투자 환경을 대폭 개선해 기업의 투자 유치를 늘려감으로써 지역경제 선순환과 고용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정인화 시장은 "이번에 개편된 인센

티브를 통해 투자기업의 입장에서 더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만들어 시에 투자한 기업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배터리 산업에 비롯한 철강·항만산업의 전후방산업 등 대기업과 협력·중소기업이 공존하고 상생하는 글로벌 미래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광양=양홍렬 기자

담양군, 국제슬로시티 '4번째 재인증'...본격 활동

주민 주도형 '협업시스템' 강화 이병노 군수 "전담팀 구성 추진"

담양군이 국제슬로시티 연맹으로부터 재인증을 받았다.

25일 담양군에 따르면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창평면 삼지내마을 돌담길, 고택의 예스러움, 한과·장류 등 전통 음식문화의 보존 등을 인정받아 2007년 12월 아시아지역 최초로 슬로시티 인증을 받았으며, 5년 주기로 이뤄지는 평가에서 이번에 4번째 재인증을 받았다.

군은 이에 발맞춰 슬로시티 사무국의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한다.

담양 창평 슬로시티 사무국(창평면 돌담길 56-24)은 지난 2월 인력을 보강하고 지역에 맞는 슬로시티 전략을 세우기 위해 주민들과 함께 자원 조사를 진행해왔다. 또한 주민 정체성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주민 주



담양군이 국제슬로시티 연맹으로부터 4번째 재인증을 받은 가운데 주민 주도형 협업시스템을 강화한다.

(담양군 제공)

도형 협업 시스템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사무국은 지난 12일 문화관광해설사들을 대상으로 슬로시티 매니저 양성을 위한 기초교육을 추진했

으며, 앞으로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계획과 함께 슬로시티의 정체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매력적인 슬로시티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병노 군수는 "앞으로 슬로시티

전담팀을 구성해 생태, 역사, 문화 자원이 어우러진 담양군의 정체성에 맞는 슬로시티 정책을 추진해 선도적인 슬로시티로 발돋움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순천시 청년센터 “만 40-45세 무료 이용”

시, 조례 개정...내년부터 청년 만 18-45세

순천시는 “최근 순천시 청년센터에서 ‘다시청년 미라대관’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2024년부터 순천시 청년기본조례의 개정에 따라 청년 나이 기준이 만 19-39

세에서 만 18-45세로 확대된다. 이번 ‘다시청년 미라대관’은 다시 청년으로 편입되는 만 40-45세의 ‘다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 청년센터는 ‘지금 청년’인 만 19-39세 청년이 50% 이상인

단체에만 대관을 허용하고 있지만 이번 행사를 통해 ‘다시 청년’인 만 45세까지 청년센터의 문화공연장, 세미나실과 같은 공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청년센터는 선제적으로 ‘다시 청년’과 접촉하고 이들의 관심사를 파악해 운영 중인 프로그램에 반영할 예정이며 발 빠르게 ‘다시 청년’까지도 포용하는 청년정책을 수립할 계획

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나이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2만4천여명이 ‘다시 청년’으로 편입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대관 신청은 순천시 e민주정원 사이트의 공유공간 예약 메뉴를 통해 가능하다. /순천=정기 기자

고흥군, ‘아이사랑’ 홈페이지 오픈

모바일 앱 연계...결혼·임신·출산·양육·교육정보 한눈에

고흥군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장려 지원시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기존의 ‘고흥 아이사랑’ 모바일 앱과 연계한 홈페이지를 추가로 개설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군은 이번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 청년부부, 임신부, 영유아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 사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아이사랑 홈페이지의 주요 콘텐츠는 결혼, 임신, 출산, 양

육, 교육, 타 기관 지원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 콘텐츠별 주요 사업정보 및 알림 창구, 커뮤니티 공간 등 부가기능도 다양하게 마련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고흥 아이사랑 모바일 앱에 이어 개설된 홈페이지를 통해 결혼에서부터 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만큼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용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출산장려 시책으로 올해 첫째·둘째·셋째 아이 출산 시 지급



하던 72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1천80만원으로, 셋째 이상에게만 지원했던 돌맞이 축하금은 모든 출생아에게 지원하는 등 출산가정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이 밖에도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에게만 지원하던

‘산후조리비’를 ‘건강회복비’로 변경해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출산한 모든 산모에게 사용처를 제한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50만원에서 최대 22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등 저출산 대응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흥=최봉환 기자

“구조역량 강화” 해경교육원, 수영 능력 평가

경정 이하 150여명 대상 자유형 50m 등 맨몸 완주

해양경찰교육원은 “지난 22-23일 교육원 내 실내수영장에서 경찰관 구조역량 강화를 위한 ‘수영 능력 평가’를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

이번 평가는 경정 이하 경찰관 150여명을 대상으로 각종 해양안전사고 상황에서 인명구조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영능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가 항목은 자유형 50m, 평영 50m, 잠영 10m 등 총 3가지 영법 중 2종목이



상 맨몸으로 완주하는 방식이다. 해양경찰교육원 관계자는 “각종 해양사고 현장에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구조역량 강화는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지속적으로 경찰관의 수영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보성군, ‘제2기 혁신 어벤져스 회의’ 개최

보성군은 “최근 군청 소회의실에서 ‘제2기 보성군 혁신 어벤져스’ 회의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 회의에는 MZ세대 공직자 20명이 ‘농부와 간호사’, ‘혁신 로켓단’, ‘보성신사’, ‘보수(秀)자들’이라는 팀을 이뤄 참여했다. 이어 팀별 자율적으로 ▲문화 축제 홍보 ▲환경 위생 교통 ▲인구 청년 일자리 ▲보건 복지 생활 등 군정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혁신 어벤져스는 회의 후 한국자문화공원 일원을 방문해 시설물, 전시관 등을 살펴보고 관광활성화방안 및 개선 사항을 논의했다. 혁신로켓단팀의 대표 정대진 주무관은 “혁신 어벤져스에 결집해 보성군을 혁신할 수 있는 이색적이고 창의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임병연 기자

화순군, 고품질 조생종 복숭아 ‘미황’ 첫 수확

내달 대극천·금황·경봉 품종 출하

화순군은 “최근 올해 고품질 조생종 복숭아 첫 수확을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수확한 복숭아 조생종 ‘미황’은 국내 육성 품종으로 과즙이 풍부하고 부드러운 맛의 황도다.

7월 초순부터는 대극천, 금황 등 품종이 수확을 기다리고 있고, 이어 군복숭아 주 품종인 ‘경봉’은 7월 하순부터 본격적으로 수확할 예정이다. 화순군 복숭아 재배면적은 240ha로 전남 최대

복숭아 산지이며, 특히 농업기술센터에서 서도록 갱신과 속기분산을 위해 보급한 국내 육성 복숭아 품종의 소비자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 국내에서 육성한 복숭아 품종 재배가 늘고 있다. 화순군은 품질 고급화, 노동력 절감, 이상기후 등에 선제 대응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복숭아를 대표 지역 특화작물로 육성 중이며 올해는 복숭아 과원 스마트 관개 시스템과 비가림하우스 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화순=이병철 기자